

“능동적 공직문화 확산”... 경남도, 적극행정 실행계획 추진

5대 추진방안, 16개 과제 수립
도민평가제·경진대회 진행
우수 공무원 인사특전 부여



경남도가 '접시깨기'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5대 방안, 16개 실천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소신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주도하고, 도민이 안전하고 일상에서 체감하는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20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접시깨기 적극행정은 접시를 열심히 닦아 깨끗한 사람은 보상에 주고, 닦다가 깨뜨린 사람은 보호해 주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이다.

경남도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실천문화로 조기 정착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대 추진방안 16개 실천과제를 수립했다.

먼저,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도정 핵심전략과 연계한 부서·분야별 적극행정 중점과제 24건을 선정해 특별관리하고, 도민 현안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 및 적극적 업무추진이 곤란한 경우 등 의견제시로 업무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적극행정위원회 현안심의 기능도 강화한다.

특히, 업무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한 문제점 해결 등 걸림돌 제거와 도정 주요 과제에 대한 행정적·제도적 집중 지

원을 위한 사업 추진 부서(기관)를 직접 방문하는 맞춤형 '찾아가는 적극행정 현장지원단'을 공공기관까지 확대 운영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성과를 달성한 우수공무원과 우수사례를 도민평가제와 경진대회 등을 통해 확대·선발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 보다 확실한 인사특전을 부여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고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다.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감사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 소송 및 보상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도민과 기업의 불편해소와 업무행태 개선을 위해 소극행정 특정 감사를 실시해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및 불충분한 설명관행을 개선하는 등 소극행정 예방 노력도 계속된다.

이밖에 적극행정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해 공직자 인식개선 교육 확대, 온라인 소통창구 다양화, 국민신청제 활성화, 도민체감도 조사 등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확산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행정의 발빠른 대응과 지원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더욱 확산되도록 하고,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남=장병호 기자 metrobusan1@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고창군 지역 영화·영상 전문인력 양성

고창농촌영화제가 영화전문인력을 키우 내며 지속가능한 명품 영화제로의 발전을 마련하고 있다.

고창군은 최근 영화진흥위원회 주관 '지역영화인력특화전문교육지원사업'과 '전북교육청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영화제작과 수준 높은 영화·영상교육을 통한 지역 영화·영상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높을고창 힐링 영화학교'는 지역 영화·영상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이다. 고창의 청정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지역민이 함께 참여해 작품을 만들고 남기는 치유문화도시의 매개체 역할을 할 계획이다.

한편, '높을고창 힐링 영화학교' 교육생 모집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고창농촌영화제는 오는 10월 28일부터 사흘간 고창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전남도 영화 제작 지원책으로 지역 활력

전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영상 촬영 시 도내 소비 금액의 최대 50%를 환급하는 '영화·드라마 제작 인센티브' 지원책으로 영상 촬영을 유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올해 전남도·여수시·순천시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총 5억 원이다. 1월부터 촬영한 작품에 한해 제작자가 도내에서 소비한 금액에 대해 최대 5000만 원(50%)을 지원한다.

지난해엔 8편의 영화·드라마 촬영팀에 인센티브로 4억1000만 원을 지원한 가운데 제작자가 도내에서 소비한 금액은 지원 인센티브의 3배가 넘는 12억9000만 원에 달했다.

지난해 전남에서 촬영한 주요 작품은 보성·담양 등에서 촬영해 올해 초까지 방영된 MBC 17부작 드라마 '웃소매 붉은 끝동'과 순천에서 촬영해 2021년 종영한 SBS 16부작 드라마 '라켓소년단', 여수에서 촬영해 올해 7월 개봉 예정인 김한민 감독의 영화 '노랑' 등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경남도의회 청사 증축 설계공모 최종 선정

경남도의회의는 도의회 청사 증축 설계공모에 원영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경상남도의회 청사 증축사업은 총 공사비 81억원으로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3872.03㎡에 연면적 2955㎡ 규모의 건물 1동으로 조성된다. 증축되는 청사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하에는 건물 관련 설비, 지상 1층에는 도민공감홀, 지상 2-3층에는 의원연구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선정된 작품은 심사위원들로부터 기존 청사 배면의 식재에 대한 고려와 전면 휴게 공간 등 배치공간이 적절하고 내부 채광, 환기 및 이용자 동선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상남도의회는 금년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연내에 공사에 들어가 내년 11월에 완공한다는 목표다.

/경남=이도식 기자

거제시,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선정

삼성중·대우조선해양 소재지
뿌리산업 아카데미 등 추진 계획



삼성중공업 구역도 /거제시

거제시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소재한 거제 죽도와 옥포 국가산업단지가 2022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됐다.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산업부에서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전략·지역산업 연계성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거제시 죽도와 옥포 국가산업단지는 152개의 사내 협력사가 소재해 있으며, 이중 용접 및 표면처리 관련 115개 뿌리기업이 집적화된 곳이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거제시 주력산업인 조선업을 이끄는 양대 조선

소와 사내협력사인 뿌리기업이 상생·협력 체계로 동반 성장해, 조선업 회복기에서 호황기로 전환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해부터 자료수집을 시작으로 산업부 대행기관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와의 지속적인 소통 등 특화단지 지정에 필요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다. 올해는 1월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통해 신청권자인 경상남도에도 양대조선소의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시작으로, 3월 현장실사 시에는 박환기 거제시장 권한대행은 물론 양대 조선소 부사장과 임원, 협력사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해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야드투어를 통해 평가단에게 거제시의 여건과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거제시는 올해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과 함께 2023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공모부터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뿌리산업 아카데미, 조선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공동인력관리시스템 구축, 뿌리기업 공정 혁신 지원 등의 공동혁신활동과 뿌리기업 전용 복지센터, 뿌리산업 스마트화사업 등의 공동활용시설 등을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전남, 농어촌체험관광상품 온라인 판매 '부산항 북항' 공공시설 146년 만에 개방

체험 174종 '남도장터'서 선보여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도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에서 농어촌체험관광 상품을 본격 판매한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비식품인 농어촌체험관광 상품을 남도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는 자연관광과 안전여행을 선호하는 관광 변화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험객 감소로 어려운 농어촌 체험관광 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월말 기준 남도장터에 입점한 농어촌체험관광 경영체는 72개소로, 숲속, 바다 등 전망이 좋은 펜션 30개소와 체험프로그램 174종을 남도장터에서 만날 수 있다.

펜션의 경우, 여수·고흥·진도·해남 등 지역은 바닷가 주변에, 구례·순천 등 지역은 울창한 숲과 어우러진 경치가 곳에 위치해 가족이나 연인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체험상품은 편백힐링 체험, 천연염색, 전통놀이 체험, 쿠키 만들기, 도자기 만들기, 압화공예, 농산물 수확 등 1일 단위 체험 행사와 1박2일 체험관광을 위한 숙박 상품으로 구성됐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항만공사, 닻새간 스탬프투어

부산항만공사(BPA)는 4일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을 개방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문화공원 1호 2만6000㎡(약 7,800평)를 개방해 시민에게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했고, 이날 문화공원 2호와 3호, 경관수로, 보행데크 등 약 6만평 규모의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1876년 부산항 개항 이후 146년간 닫혀있었던 항만을 재탄생시켜 시민에게 제공한다.

개방되는 주요 시설로는 부산역에서 재개발지까지 도보로 이용이 가능

한 폭 60m 규모의 보행데크가 있으며, 축구장 면적의 16.8배 규모의 문화공원과 사업지를 따라 조성된 약 1.3km의 경관수로가 대표적이다.

또한, 랜드마크 부지에 8만9000㎡ 면적의 도심 야생화단지를 조성,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휴식과 힐링공간을 제공한다.

BPA는 대국민 홍보를 위해 개방일인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개방시설 곳곳을 둘러보는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과 북항 재개발지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북항 재개발지 역사 사진전'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장병호 기자